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

다니엘 3:13 - 18

세상이 던지는 믿음의 압박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화덕에 넣어 불태울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이 전혀 다름을 나타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통과 시련을 만나게 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많이 겪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선택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대답

억압하는 상황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의 상관없이 신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들의 대답의 근거는 성경에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성경에 쓰여있기에 단호하고 분명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기에, 강한 힘으로 말하기에 옳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단,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정죄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대답할 것이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들의 믿음은 일의 성취에 대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라고 느부갓네살에게 말했고,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상황에도 변함없지 않는 건강한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은 일이 어떻게 풀리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굳건히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않는 것 같아도, 때맞게 하지 않은 것 같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